

## 다렌 우호 기념관

다렌시는 과거 모지 항구와 국제 항로로 연결되어 교류가 활발했습니다. 벽돌, 돌, 나무로 만들어진 이 건물은 기타큐슈시와 중국 다렌시의 우호 도시 체결 15주년을 기념하여 1994년에 건설되었습니다. 과거 일본이 다렌을 지배하던 시기도 있었지만, 이 협정은 두 시의 복잡한 역사에 좋은 전기가 되었습니다. 이 건물은 다렌시에 100년 이상 전에 건설된 철도 기선 회사의 사무소가 모델입니다.

2층은 휴식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다렌에 관한 작품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로 된 비디오도 있습니다.

### 본격적인 아름다운 건축

이 건물은 독일인 건축가가 1902년에 설계한 다렌의 철도 사무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. 건축 양식은 그러한 다국적 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 높은 탑의 지붕과 하프티버 벽 등에는 러시아와 독일의 특징이 뚜렷이 보이며, 곡선형 기와를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쌓아 올린 중국식 지붕도 볼 수 있습니다.

이 철도 사무소가 선정된 이유는 그 아름다움, 희소성,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며, 가능한 한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원본 설계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건설팀은 다렌으로 건너가 현존하는 건물의 치수를 꼼꼼하게 측정했습니다. 또한, 석재와 벽돌 등의 재료를 다렌에서 수입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두 시와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, 재현된 이 건물은 우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